

보도자료

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1. 10. 8.(금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영종청라기반과
담당	과장 천준홍, 제3연륙교정책팀장 박춘곤, 담당 오영림(032-453-7621~4)

“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에 힘 모아달라”

박남춘 인천시장, 제3연륙교 건설 시공사·지역업체 간 ‘만남의 장’ 행사 방문…
애로사항 청취·지역업체 격려 “지속적인 행사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최선”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청라국제도시 제3연륙교 건설현장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공사와 지역건설사 간 두 번째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.
- 박남춘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시공사와 지역건설업체 등이 모인 현장을 직접 찾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.
- 지난 4월에 이어 개최된 이번 만남의 장 행사에는 제3연륙교 2공구 시공사인 (주)포스코건설, 1공구 시공사인 (주)한화건설을 비롯 인천지역 40여개의 전문건설, 자재, 신기술·특허보유 업체가 참여했으며 지역업체들은 각 시공사 부스에서 실적 및 공법 자료 등 업체의 우수성을 알렸다.
- 박남춘 시장은 “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한 이번 만남의 장 행사는 인천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앞으로 인천시에서도 이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, 지역건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인천경제청은 만남의 장을 통해 신기술·특허공법 등 기술력이 우수한 지역업체는 기술제안 설계에 반영하고, 또 시공성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들을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3연륙교 건설 관련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76%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.
- 한편 이날 현장에는 박남춘 시장을 비롯 이원재 인천경제청장, (주)포스코건설 한성희 대표, (주)한화건설 박용득 부사장, 지문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장 등이 참석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.
-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제3연륙교는 길이 4.681km, 폭 30m의 왕복 6차로와 보도 및 자전거도로로 건설된다.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적용돼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 등 시민 체험·관광형 교량으로 건설된다.
- 현재 3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물양장과 해상준설 등 우선 시공분인 3공구는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다. 1, 2공구는 지난 8월 기술제안 평가를 실시했으며 낙찰예정자를 선정 후 12월까지 보완설계를 거쳐 착공된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인천시

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